

85년도 精油業界 경영실적

- 大韓石油協會 -

1. 1985년도 經營實績 및 평가

(1) 85년도 精油事業의 經營실적

○ 85년도 정유업계는 석유화학, 發電 등 기타사업을 제외한 精油사업부문에 稅前기준으로 712억원, 稅後로는 434억원의 經營실적을 나타냈음.

85년도 精油事業 손익실적 (단위 : 억원)

	油 公	湖南精油	京仁에너지	雙龍精油	極東石油	計
稅前기준	365	222	48	77	0	712
稅後기준	232	110	15	77	0	434

○ 이와 같은 經營성과는 7.6%에 달하는 급격한 환율 상승과 기타 원가상승요인에도 불구하고 국제원유시장의 안정에 따른 原油도입가격의 하락과 국제금리의 안정 등 외부적 요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賃加工 수출확대와 내부 經營 합리화 등 자구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써 이는 매출액 67,500억원의 0.64%, 자기자본 3,830억원의 11.3%수준임.

○ 그러나 정부는 지난 2.20 油價인하조정시 精油社의 85년도 이익수준이 油價에 반영된 허용이익 수준보다 536억원의 초과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油價인하재원(油價인하율 1%에 해당)으로 사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85년도 정유사업은 102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결과가 되었음.

85년도 精油事業 실손익 분석 (단위 : 억원)

● 油價반영손익	551	} ▲71억
● 油價구조의 손익	232	
- 다변화 장려금	(167)	
- 임가공 수출 이익	(65)	
적정이익	783	
결산이익(세전)	712	
2.20油價조정시 정산차감액	▲536	
稅前손익	176	
법인세 납부 예정액	▲278	
85년도 실손익	▲102	

- 정유업계의 기타 사업은 石油化學, 發電, 윤활유 부문으로 구성되는 바 이와같은 사업은 별도의 투자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의 별도 가격관리를 받고 있음.

- 이러한 사업들은 국가경제의 중요한 기간산업으로서 기타부문과 精油부문의 손익을 구분하지 않는다면 산업별 평가기준이 상실되고, 현 상황과 문제점 파악이 곤란하게 되어 향후 산업정책 수립이 불가능하게 됨.

- 기타 부문은 회사별로 성격과 규모가 크게 상이하하여 精油産業 평가시 기타부문 수익을 고려한다면 기타부문 범위가 미미하거나, 결손부담을 안고 있는 회사에는 더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임.

85년도 其他事業 손익현황

(단위: 억원)

油 公	湖南精油	京仁에너지	雙龍精油	極東石油	計
92	24	16	▲53	5	84

2. 精油産業의 손익추이와 문제점

(1) 精油産業의 손익추이(1980-1985)

○과거 精油産業이 과다한 이익을 거두어 온 것처럼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실상은 환율상승에 따른 손실로 인하여 지난 6년간 누적이익이 302억원으로 연평균 50억원에 불과한 실정임.

精油事業의 손익추이

(단위: 억원)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計
정유사업	▲575	▲246	529	15	145	434	302

○精油産業의 결산실적은 6년 누계로 916억원 이익이나, 이것은 정부의 별도가격관리를 받고 있으며, 별도의 자본투입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石油化學, 發電 등 타 사업에서 발생한 것이며, 石油製品을 생산 공급하는 精油業 자체는 지속적인 결손으로 적자 산업화되고 있음.

其他事業의 손익추이

(단위: 억원)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計
기타사업	91	71	28	172	168	84	614

(2) 精油産業의 손익평가

○精油産業의 80-85년 기간중의 연평균 이익 50억원은 현행 정기에금 金利수준이나 정부관리 가격의 原価검토 요령의 기준이 되고 있는 자기자본 이익률 10%와 비

교할때, 연평균 158억원, 6년간 946억원이 미달되는 결과임.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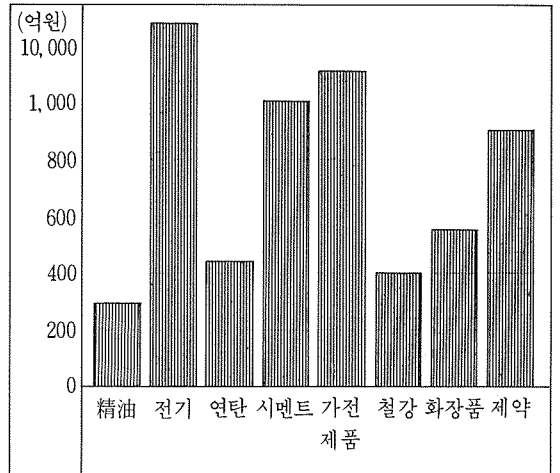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計
자기자본10%이익	63	120	170	260	289	346	1,248
손익실적	▲575	▲246	529	15	145	434	302
차이	▲638	▲366	359	▲245	▲144	+88	▲946

(3) 他業種과의 비교

가. 純利益규모

○精油産業은 80-85년 기간 중 총 302억원의 누적이익을 보인데 비해 정부의 가격 관리를 받고 있는 전기업과 연탄업(80-84)은 각각 10,737억원, 414억원의 이익을 기록했고, 가전제품업 1,799억원, 제약업의 952억원, 시멘트업 1,313억원, 화장품업은 588억원의 이익을 올려 대조를 이루고 있음.

1980-1985년 순이익 비교



(단위: 억원)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計
精油業 (5개사)	▲575	▲246	529	15	145	434	302
전기업 (1개사)	1,885	1,947	1,829	2,303	2,773	N/A	10,737
연탄 (15개사)	188	39	33	54	100	"	414
시멘트 (5개사)	71	▲103	167	376	410	390	1,313
가전제품 (7개사)	▲142	162	180	566	463	571	1,799
철강 (10개사)	2	5	46	146	96	137	428
화장품 (2개사)	60	60	74	126	133	135	588
제약업 (16개사)	13	157	230	226	217	109	952

(자료) 전기, 연탄업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시멘트, 가전제품, 철강, 화장품, 제약업은 상장회사 결산자료(85년 실적은 증권회사 추정자료)

나. 自己資本 이익율 비교

○80-84년 기간 중 精油産業의 자기자본 이익률은 ▲1.23%로서, 화장품업의 16.4%, 제약업의 14.6% 및 가전제품의 11.4%에 크게 미달하고 있음.

(단위 : %)

	1980	1981	1982	1983	1984	평균
精油業	▲60.9	▲17.8	20.6	0.5	4.0	▲1.23
전기업	17.8	14.0	7.5	6.6	7.0	7.8
연탄	23.6	16.1	9.6	11.7	15.9	14.9
시멘트	4.4	▲5.3	5.1	10.2	9.9	6.3
가전제품	▲13.3	10.4	10.4	20.5	12.7	11.4
철강	2.2	0.3	2.5	6.6	4.0	3.6
화장품	15.3	14.2	13.9	19.7	17.1	16.4
제약업	15.3	15.8	18.6	15.8	10.9	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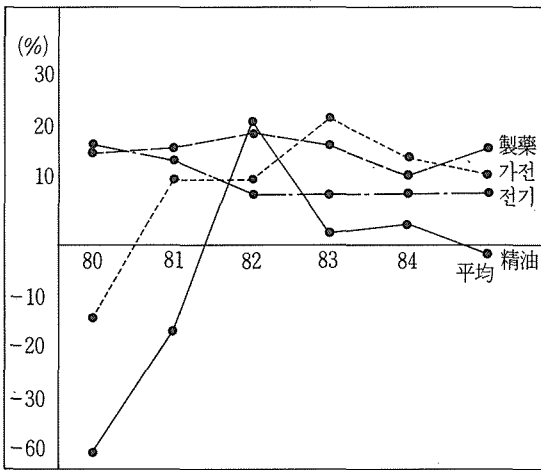
다. 賣出額 이익율 비교

○80-85년 중 精油産業의 매출액 이익율은 0.07%로서 제약업의 5.0%, 화장품업의 4.9%, 가전제품업의 1.6%에 크게 미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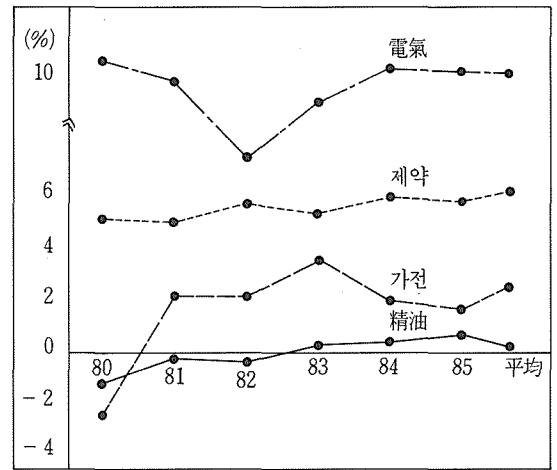
(단위 : %)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평균
精油業	▲1.41	▲0.44	▲0.877	0.02	0.22	0.64	0.07
전기업	11.3	8.5	6.9	7.7	8.7	NA	8.4
연탄	2.9	1.0	0.7	1.2	2.0	"	1.5
시멘트	1.3	▲1.6	2.2	4.2	4.5	4.5	2.9
가전제품	▲2.6	1.8	1.8	3.2	1.5	1.4	1.6
철강	0.2	0.1	0.5	1.3	1.0	1.5	0.9
화장품	4.9	4.0	3.9	5.7	5.2	5.2	4.9
제약업	4.9	4.6	5.5	4.8	5.3	4.2	5.0

自己資本 이익율 비교



賣出額 이익율 비교



아껴쓰는 에너지

내집크고 나라크다